



정은주, 박미란, 백금희 씨. (왼쪽부터)

단다른 길 걷다 '비단길'에서 만난 세 이줌마

낙타에 한가득 짐을 싣고 세 여자가 길을 떠났다. 꼼꼼히 훑아보니 단순한 행상은 아니다. 기원전 2세기 한나라 장군이 파미르 고원을 뚫고 비단길을 열 때와 진배없는 눈빛이다. 어떤 인연인가 사연을 물으니 세 여자를 둘러싼 갖가지 공통점들이 속속 드러난다. 모두 여자다. 그리고 자녀를 둔 주부다. 1960년대생이다. 어린이책에 관심이 많다. 각각 역사교사, 방송작가, 신문기자로 다른 길을 걸어 왔으나 이른바 '고급독자' 입장에서 냉정한 눈으로 책을 읽어왔다. 서로 공명하는 바가 많다는 걸 알고 난 후 세 여자는 토크 테이블을 마주하고 수다 떨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 한다.

“본래 저 박미란과 백금희는 선후배 사이였고 정은주 씨는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공부하다 알게 됐어요. 어린이책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강의를 들었는데 다양한 기획거리를 내보다가 '비단길'이란 주제를 놓고 서로 공감을 하게 됐지요.”

'비단길'을 화두로 얹어놓은 후엔 기존 교과서와 역사서의 한계가 더욱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세 여자의 공동저작물이

면서 그들의 처녀작인 이번 책도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먼저 그동안의 한국 역사서들이 한결같이 일국 중심의 서술을 해왔다는 게 영 탐탁치 않았다. 세 사람 모두 개별국가 정보를 나열하는 서술은 '관계성'을 무시한 역사서술이 아니냐고 회의했다. 눈 깜짝할 새 온라인상에서 교류를 완료하는 초고속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국가별로 분절해 외운다니 우스운 꼴이라 생각됐다. 한편 굳이 주독자를 청소년으로 결정한 것은 지독한 목마름이 부른 당연한 선택이었다. 세 사람 모두 성인책과 비교할 때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역사교양서가 많지 않다는 걸 아쉬워하던 차였기 때문이다. 또한 곧 청소년이 될 자녀의 엄마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양서를 선물하고 싶다는 부모님 마음도 작용했다.

'간수' 정수일 씨의 책 로드맵 삼아 '우리 길' 찾았다

아무리 아무지기로 소문난 한국의 어머니들이라지만 여행의 필수품, 지도 없이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기란 녹록찮은 일이었다. 세 사람은 고백하듯 비단길 세계여행에 숨은 원조자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공로자는 '간수'라 불리는 정수일 씨. 세 저자는 정씨의 텍스트 《실크로드학》을 지도이자 기초 텍스트 삼아 자신들만의 비단길 여행 경로를 찾았다. 각 챕터별로 발제와 토론을 거듭하던 중 정수일 씨에게 미안한 일도 많이 만들었다. 성이 안 차거나 의문사항이 생길 때마다 질문지를 보냈다. 다행히 정씨는 이들의 열의를 반갑게 받아들였고 급기야는 책 서문에 추천사까지 써주었다. 그새 3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한 쪽지씩 1차 마감을 완료한 상태에서도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거나 새로운 번역서가 출간되면 더 추가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지만 마음을 비우고 답안지를 제출해야 하는 수험생의 심정으로 최종원고를 넘겼다.

이번 책은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좋게도 세 아줌마만의 새로운 시각, 그들만의 고집과 뚝심이 담겨 있다는 평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기존의 비단길이 장안에서 로마까지로 지정돼 있었다면 세 사람은 양전하게 지정 영역만 걸어보는 것을 거부했다. 과감히 영역을 확장해 본 결과 최근 일기 시작한 한반도 연장설에도 관심을 쏟고 그 개연성을 연구하거나 북방 유목민족과 이슬람 지역까지 상세히 조망했다. 역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서유럽, 중국 등 강대국 중심의 사관으로 기술되던 역사에 탄축을 걸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는 게 그들의 속내였다.

“우리나라를 처음 발견한 외국인인 우리를 동방의 고요한 나라라고 표현했던가요. 그것도 알고 보면 서구중심주의 사상에서 나온 말이죠. 역사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구요. 실제로 따져보면 신라시대 때부터 이슬람인들이 다녀간 흔적이 보입니다. 신라가 아시아의 동쪽 끝이지만 얼마나 대륙의 중심과 밀접하게 교류했는지 알 수 있죠.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에 없는 중요 유물들이 신라에서 발견된 흔적도 있구요.”

특히 3장, 5장, 6장을 집필하면서는 기존의 역사서에선 보기 드문 자료들을 발굴하며 발견의 재미를 톡톡히 느꼈다. 기존의 사료들이 놓치거나 일부러 배제했던 것들을 포획한 것 중엔 허황옥이나 신라의 처용설화, 사마르칸트 교외의 벽화 속에서 발견한 조우관을 쓴 고구려 사신 등 다양한 인물과 사연들이 있다.

셋이 나눠 부담은 반에서 반으로, '친절한 역사서' 완성에 만족

정은주 씨는 “책이 나오고 보니 시대 흐름과도 적절히 맞는 아이템이었던 것 같다”고 자평한다. 서구중심주의의 한계를 깨달은 강대국들이 일부러 소외시켰던 동양의 정서에 기대 여러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는 분위기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나온 여행사의 비단길 패키지의 출연도 그런 점에서 보면 의미심장한 변화로 느껴진다.

“지금은 뉴욕과 서울의 유행이 거의 일치하잖아요. 근데 당시 로마와 신라의 유행은 어땠을까요? 6개월 간격 정도 됐을까? 이렇게 우리끼리 수다도 떨어보고 상상하는 재미도 남달랐어요. 어떤 분들은 역사서를 공동으로 작업한다는 데서 일관성이 없진 않을까 우려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 없는 여행이라 단정하면 거짓말이겠고, 부담이 느껴졌지만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간 덕에 그 부담을 덜었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특히 워낙 방대한 양의 자료를 토대로 하는 역사서 작업이기 때문에 함께 준비한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한 어떤 주제를 놓고 혼자 틀에 박힌 사고를 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덜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 매번 신랄한 토론시간을 가졌다.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주제와 상관없이 말투나 표정까지 지적하며 유치한 말다툼을 안 했다곤 말 못한다. 물론 그런 소소한 다툼들을 여행의 미덕이라 부른다면 정말 큰 탈 없이 여행을 마친 셈이다. 결과적으로 여행의 결과물이 되는 이번 텍스트는 세 사람이 나눠 작성했다.

“각 챕터별로 쓴 사람이 다른 거죠. 혹시 그게 느껴질까요? 기계적으로 통일하고 싶지 않았고, 설명 언급하며 일부러 너무 나누는 것도 싫었고 자연스럽게 좋을 것 같았지요. 사실 저희 입으로 기존 시각과는 다르게 객관화, 균형화를 꾀했다 해서 정말 균형 있는 시각을 담았다는 건 거짓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객관화를 하려 해도 우리도 모르게 내 입장, 시각, 편견이 담길 수 있는 게 역사서술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전의 역사서술과는 다른 눈으로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려 애쓴 것만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번 책을 놓고 꽤 만족하는 분위기다. ‘친절한 역사서’를 완성하자면서 “했어요”체의 서술을 해보려고 고집했지만 청소년,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읽혀야 한다는 이유로 딱딱한 “했다”체로 바꿔 쓴 것이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다. 물론 “수박 겉핥기다. 다양하지만 깊이가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고언을 들을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 굳이 변명이라도 하려면 이 책은 ‘비단길 연구서’가 아니라 ‘비단길 개론서’로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친절에 관해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항상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희들도 대화하는 역사를 배우지 못했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숨쉬는 것 자체가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역사서가 많이 나왔으면 해요. 《살아 있는 역사교과서》 같은 책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책을 내놓고 싶습니다. 비단길이 낯은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하는 데만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네요.(웃음)” **▶▶**

취재 김철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